

임실 키즈테마파크 건립 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어린이 친화공간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임실군이 아동친화형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키즈테마파크 건립사업 추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19일 군수실에서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군 및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키즈테마파크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35만여명 이상이 찾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임실키즈테마파크로 연중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키즈테마파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임실키즈테마파크 일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될 경우 치즈체험과 더불어 가족단위 전국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임실키즈테마파크의 사업 확장과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함께하는 치즈체험과 놀이문화를 연계한 키즈테마파크 건립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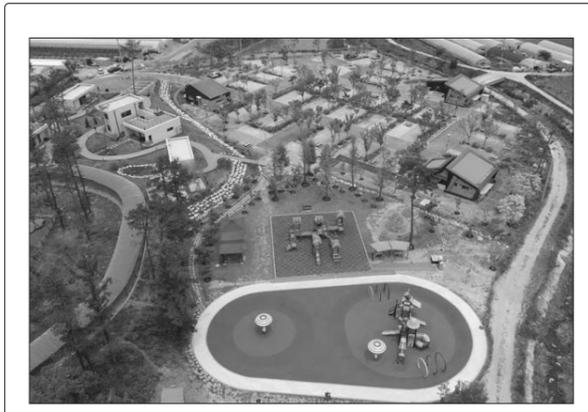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5년간 6.96% 증가했다. 이 중 임실치즈

테마파크 관광객은 무려 19.19%가 늘어났다.

군은 관광객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참여형 임실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성중인 잠미원, 팜랜드,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연중 임실N치즈축제의 장이 열리고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500만 임실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 브랜드에 걸맞은 키즈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인 만큼 기본구상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임실N치즈축제와 어린이날은 물론 주말이 되면 가족단위로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키즈테마파크를 찾고 있어서, 이들 관광객들을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운봉읍에 시설되어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 내 스테이힐링 워터파크가 곧 개장해 올 여름에도 운영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워터파크 내달 개장

남원시, 물놀이·휴게시설 설치... 8월까지 운영

남원시는 운봉읍에 시설되어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장 내 스테이힐링 워터파크가 곧 개장해 올 여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스테이힐링 워터파크를 내달 2일 개장해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6월말까지 시설 작업을 점검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물 저장탱크 청소와 휴게시설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시관 입장객은 누구나 스테이힐링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과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5억여원을 들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일원에 물놀이 조합놀이대, 조형분수, 유아풀장 등 물놀이 시설과 벤치 및 퍼걸러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스테이힐링 워터파크를 조성해

운영했으며, 2만여명이 피서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계의 환경지표가 되는 애벌레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전에는 30여종의 각종 애벌레와 애벌레 오감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워터파크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안전한 여름 만들기 구슬땀

농업수리시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가 여름철 재해 없는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농업수리시설과 공사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이달 말까지 농업수리시설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농경과장을 총괄로 농경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9개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안전점검 점검표를 기반으로, 배수문과 배수장 작동상태, 주요 배수시설 유기 전 관리상태(배수로 수초 제거상태), 적정 유수단면 확보 여부,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비상연

락망을 갖춰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7월 초까지 완료해 재해위험을 사전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남원시 안전재난과에서는 뱀사골·구룡계곡, 요천 등 피서지에 홍수 경고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카운트다운 돌입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서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식

순창군은 1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사랑상품권 발행(8월 1일)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한국조폐공사 황문규 기술 해외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순창군과 한국조폐공사는 지류(종이)방식과 모바일상품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군민,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체계적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순창군은 자금역외방출 방지와 지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년 10억 규모의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관내 사업장을 일일이 돌며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전체 대상 사업장의 50% 정도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으며, 군은 읍면 사무소 직원들과 협조해 발행일까지 가맹점 등록률 100%에 도전할 방침이다.

상품권 활용율을 평소 7%, 설추석 명절에는 10%까지 확대해 상품권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

을 세운 가운데 군은 1회 5만원이상(3개 업소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상품권 유통 안전성 대책으로 첨단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종이로 제조·공급해 상품권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부터 발행할 계획인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적용과 해킹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해 군민 편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남원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7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청 기획실(예산계)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으로는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시민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한 도시 환경 ▲생활SOC사업 등 시

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해당되며, 민간보조사업, 축제 및 행사상 사업, 국·도비매칭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검토 후 시민위원회 분과위원 현장활동 및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주민이 제안한 176건 사업 중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138건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한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적성면 지역 화합 간담회

순창군 적성면은 19일 기관·단체장·퇴직공무원 등 40여명과 함께 군정발전과 지역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체계산 뷰라인 연결사업(출렁다리),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면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권경남 노인회장은 "공직 생활 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퇴직공무원과 자리를 함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신 중년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남원시는 예비 관광벤처기업 패스파인더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신 중년 경력 전환 탐색여행인 패스파인더 시범사업을 21일부터 22일까지 지리산권 일대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스파인더 시범사업은 서울시 직장퇴직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 경력 전환의 신 중년에게 여행을 통한 경력전환의 계기를 제공, 남원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남원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생활과 여행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일정은 ▲서울시 신 중년과 남원시 시청과의 대화 ▲신 중년과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만남을 통한 남원 제대로 알기 ▲마을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심민·송석현)는 1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간사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철 폭염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읍면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지원 발굴 등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이 주인 되는 공공 서비스(주민공) 사업'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 민간 연계·협력 및 주민력 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군 희망복지담당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읍면 협의체가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